

중년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신애착과 영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 문 정

장 진 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신애착이 매개하는지를 살피고, 이 과정에서 영성이 신애착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40~60세 사이의 중년기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분석에는 333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성인애착 회피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애착 회피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성인애착 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애착 불안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넷째, 성인애착 불안과 신애착 불안의 관계를 영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신애착 불안이 매개하며, 이 매개효과를 영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신애착, 영성, 조절된 매개효과

* 본 연구는 박문정(2018)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년의 성인애착이 신애착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영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수정 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장진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Tel: 053-850-3237, E-mail: jyjjang21@cu.ac.kr

중년 성인은 인생 중반에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 성취 수준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울, 공허감 등을 느끼며(안수정, 서영석, 2017) 발달상의 위기를(조영주, 이지연, 장진이, 2012) 경험할 수 있다.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감과 노부모를 돌보고 자녀의 독립을 조력하는 과업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부세계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의 초점을 내적 세계로 옮기고(Jung, 1954), 행복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심리적, 영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Sadler, 2000). 이와 같은 전환기적 변화 과정을 통해 중년 성인은 자신의 내외적 인격을 통합하며 진정한 자기 실현의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년기를 맞이하는 한국 사회의 성인들은 어떠한가? 가장 안정적이고 큰 성취를 경험해야 하는 중년들이 오히려 사회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나 경험적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안수정, 서영석, 2017). 한국의 중년들은 경제적인 역할 수행, 자녀들의 입시 및 취업을 같이 겪어야 하는 등 현실적 스트레스가 많고(이은영, 왕은자, 2017), 청년 실업으로 자녀의 부모의존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중년기 발달과제에 집중할 심리적 여유를 갖기 어렵다. 실제로 중년 남성은 직장가정에서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고(정성훈, 2013), 중년 여성들은 자녀의 독립에 따른 부모 역할 감소와 환경 등의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에 부담을 가지면서 정체감의 혼란을 호소하였다(김춘경, 2011; 송숙자, 2002). 이러한 중년 성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중년기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만큼(정성훈, 심운경, 천성문, 2016) 중년 성인

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과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포괄적 관점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은 크게 6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자기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 타인과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하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적이고도 독립적인 자율성, 적절한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능력, 인생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는 목표 지향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성장해 나가려는 욕구 충족 등을 포괄한다(Ryff, 1989).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차원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고 목표를 지향하는 것과 자신의 잠재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성장해 나간다는 하위 차원은 중년 성인의 발달 단계 특성을 잘 반영하는 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조망한 Ryff(1989)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가운데 성인애착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애착 이론에서 강조하는 내적작동모델은 주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 대한 유아의 기억으로, 개인에게 대인관계의 성질로 내재화되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관계맺는 방식의 기초로 작용한다(신승범, 2015). 특히, 성인애착은 초기 애착에서 비롯되어 특정인과의 근접성과 접촉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안정적 경향성으로(Sperling & Berman, 1994)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관계가 성인기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신승범, 2015;

Main, Kaplan & Cassidy, 1985). 성인애착은 크게 성인애착 회피와 성인애착 불안이라는 독립적인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성인애착 회피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자기의존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내적 자원을 통해 성취를 얻고자 한다(김병직, 2009). 또한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평소 타인과 거리를 두며 최대한 자기노출을 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인다(박인숙, 김은하, 2018; Brennan, Clark & Shaver, 1998; Mikulincer & Shaver, 2007). 반면, 성인애착 불안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내적 능력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강화받고자 하는 특성으로 드러난다(김병직, 2009; 박인숙, 김은하, 2018; Mikulincer & Shaver, 2007). 성인애착은 주관적 행복감과 심리적 적응과도 관련이 높다(김송이, 2017; 박미경, 2016; 안진영, 유순화, 2016). 안정애착은 높은 자기존중감과 신체적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Bell & Boykin, 1994). 정서조절 전략에서도 차이가 있어 애착회피의 사람은 타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억제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고, 애착불안의 사람은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반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였다(Kobak & Sceery, 1998). 이처럼 상이한 정서 대처전략을 사용한다면 관계 경험과 이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김태사, 안명희,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성인애착 회피와 성인애착 불안이 각각 중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중년 성인에게 종교는 삶에 대한 안

정감과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안목을 갖게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길자, 한재희, 2009; 한재희, 2007).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도 종교성(religiosity)은 대학생(류정희, 2008; 조혜윤, 손은정, 2008), 기혼여성(김인아, 2003; 허찬, 2006), 노인(한내창, 2002)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irkpatrick(1992, 1997, 1999)은 종교적 신앙이나 행동을 성인애착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지각된 신(God) 또는 초월자와의 관계에 개인의 심리적 애착 과정과 애착 유형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았다. 즉, 신이 안전기지로서 안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신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애착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애착대상과 마찬가지로 신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 유대감을 경험한다(최해림, 2005, 2006).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도 성인애착 유형은 종교적 신앙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최해림, 2006; Kirkpatrick, 1997; Kirkpatrick, 1999; Kirkpatrick & Shaver, 1992), 양육자와의 애착이 종교적 안정성이나 개종과도 관련이 있어(Granqvist, 1998)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애착대상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앙생활에서도 더 안정적이었다(Granqvist, 2002). 이는 한 개인의 애착 유형이 신과의 애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Kirkpatrick(1992)이 제기한 신애착(attachment to God)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신 또한 개인의 애착대상으로 가능하며, 신과의 감정적 유대 경험은 성인의 낭만적 관계처럼 애착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성인애착 유형이 신애착 유형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졌는데, 부모애착 하위 요인 가운데 의사소통은 신애착 회피와 부적 관련성을 가졌다(최해림, 2006). 또한 성인애착 회피와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의 두 차원인 신애착 회피와 신애착 불안 각각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가졌다(신승범, 2015). 즉, 성인애착 회피 유형의 개인은 이후 신과의 관계에서조차 회피 유형을 발달시키고, 성인애착 불안 유형의 개인은 신과의 관계에서 불안 유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신과의 애착은 인지 발달상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여 추상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기 이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신과의 애착은 발달단계상 이른 시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애착 유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에게 적절한 돌봄과 사랑을 받은 사람과 달리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부정적인 사람은 신도 자신의 부모처럼 양가적이고 처벌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김미선, 이유니, 2018). 신에 대한 표상 역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내면화된 부모 표상의 반영이기 때문이다(Rizzuto, 2000). 이러한 주장은 Kirkpatrick(2005)이 제안한 내적작동모델 일치가설에 해당된다. 즉, 신의 이미지를 주양육자와 일치시킨다는 것으로 신에 대한 애착이 개인이 가지는 애착 유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신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신애착은 우울 및 불안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졌다(Kirkpatrick & Shaver, 1992). 즉 신과의 관계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낮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였고(Bishop, 2008; Knabb & Pelletier, 2014)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Freeze & DiTommaso, 2014). 반면, 신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였다(Varghese,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과의 관계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보다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신애착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불안정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영성과 같은 성격적 강점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기되었다(임선배, 2013).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다라도 영성 수준을 향상시키면 개인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 삶에 대한 만족감 수준이 높았다(김동기, 2013). 일찍이 영성은 개인의 성격 발달에서도 중요하며(Stannard, Sandhu & Painter, 2000) 개인의 성장과 자기실현을 돕기 위해서 상담 장면에서도 영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utris & Davis, 1999; Faiver, O'Brein & Ingersoll, 2000). 높은 영성 수준은 중년기 삶의 목적과 자기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나 자살 사고 등을 완화시켜 주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수용하게 하였다(정덕신, 배성만, 주은선, 2014). 이는 영성이 중년의 삶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삶의 여정에서 인식처로서의 대상, 즉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하는 안전기지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신과의 관계맺음을 찾을 수 있다(정고운, 2011). 이때 Kirkpatrick (2005)이 제안한 내적작동모델 일치가설에 따르면 신의 이미지를 불안정한 애착대상과 일

치시킬 수밖에 없는 개인은 신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 신과 안정애착 형성에 실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과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개인에게 영성 발달을 촉진시켜줌으로써(Ellison, Branshaw, Flannelly & Galek, 2014; Hall, Fusikawa, Halcrow, Hill & Delancey, 2009) 신과의 관계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의 애착 유형은 신과의 중요한 관계 경험을 통해서도 변화 가능하였다(김광은, 2005; 김행섭, 2010; Kirkpatrick, 1999; Kirkpatrick & Shaver,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중년 성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영성 수준을 향상시켜 신과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형성한 개인의 경우 신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영성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영성 수준을 향상시키면 개인의 영적 성장이 가능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 수준이 높아졌던 만큼(김동기, 2013; 임선배, 2013) 매개변인으로서 신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즉 신애착의 매개효과 역시 영성이 조절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과의 관계 경험이 중요한 만큼 영성은 성인애착이 신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고, 이러한 조절된 효과가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금까지 중년 성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애착, 신애착, 영성과 이들 변인들 간에 있을 수 있는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애

착이 매개변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인애착과 신애착의 관계에서 영성이 조절변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지와 성인애착이 신애착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인애착과 신애착, 영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탐색은 중년 성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상담 및 발달 촉진적 예방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경험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애착 회피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신애착 회피가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2. 영성 수준은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완화할 것인가?

연구문제 3. 성인애착 회피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신애착 회피의 매개효과 크기는 영성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할 것인가?

연구문제 4. 성인애착 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신애착 불안이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5. 영성 수준은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완화할 것인가?

연구문제 6.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 크기는 영성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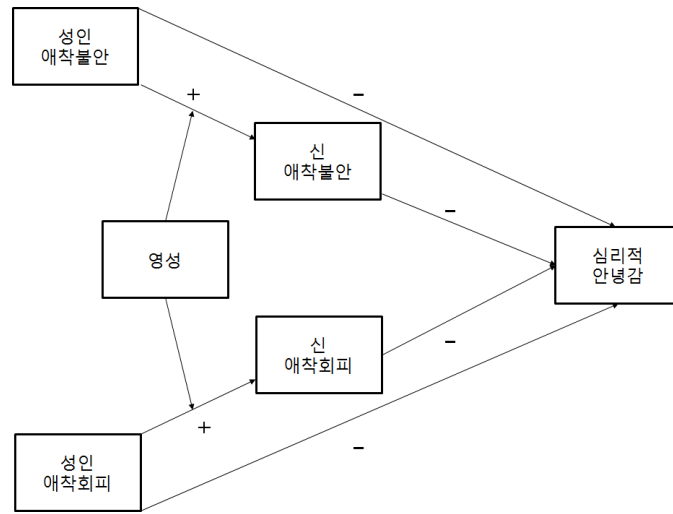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방 법

측정도구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대전,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0~60세 중년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 67부를 제외한 33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160명(48.0%), 여자 173명(52.0%)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40~49세는 140명(37.90%), 50~59세는 207명(57.00%), 60세 이상은 17명(5.1%)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111명(33.3%)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222명(66.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해립(2005, 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애착이 종교 유무와 관계없는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을 포함하였고, 특정 종교에 따른 분류도 하지 않았다.

성인애착

Brennan, Clark과 Shaver(1998)이 개발한 성인애착 척도를 Brennan, Fraley와 Wallker(2000)가 개정하고 김성현(2004)이 번안하며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를 사용하였다. 성인애착 불안과 성인애착 회피 차원을 각각 18문항씩 평가하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 불안과 성인애착 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애착 불안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을 측정하고(예: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지 지나 애정을 주지 않을 때 화가 난다.”) 애착 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회피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측정한다(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걱정된다.”). 김성현의 연구(2004)에서 내적

합치도계수(Cronbach's α)는 성인애착 회피 .85, 성인애착 불안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계수는 .90, 성인애착 회피 .90, 성인애착 불안 .87로 나타났다.

신애착

Rowatt과 Kirkpatrick(2002)이 개발한 신애착 척도(Attachment to God Scale; AGS)를 최해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신애착 회피 차원(6문항)과 신애착 불안 차원(3문항) 두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신애착 회피는 자기의존에 대한 욕구, 신에게 의지하거나 신과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꺼림이나 불편함을 의미한다(예: “신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하다.”). 신애착 불안은 신에게 거부당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불안, 신과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입이나 걱정을 의미하며(예: “신은 때로 나의 요구에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하지 않으신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애착 관계에서의 회피나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신애착 회피 .92, 신애착 불안이 .83이었으며, 한국판 번안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83, 신애착 회피 .93, 신애착 불안 .54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76이었으며, 신애착 회피 .85, 신애착 불안 .60이었다.

영성

이경열(2003)이 한국인의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성 척도는 개인의 가치와 희망, 삶의 이유를 아는 삶의 의미와 목적(예: “나는 내가 사는 이

유를 안다.”), 인생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며 외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내적자원(예: “나는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우주와 우주적 존재를 포함하는 자기, 타인 및 모든 세계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연결성(예: “나는 타인을 친근하게 느낀다.”), 내적, 외적 사건들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각(예: “나는 지금 나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린다.”), 상위 존재나 힘 또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초월성(예: “나는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비심(예: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잘 보살핀다.”) 등 6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하위 요인별 5개 문항씩 이루어져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타당화한 축약판을 사용하였다. 자기수용(예: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긍정적인 대인관계(예: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자율성(예: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내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삶의 목적(예: “나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의 성장(예: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등 6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식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의 서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다. 둘째, 신애착 회피와 불안이 성인애착 회피와 불안 각각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스트랩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인애착 회피와 불안, 신애착 회피와 불안 각각의 관계에서 영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5)가 제안한 모형 절차에 따라 SPSS Macro PROCESS의 모델 1을 통해 조절변인이 투입된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조절변인의 어느 부분에서 조건부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존슨-나이만(Johnson-Neyman Technique)에 의한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통합 모형인 영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모델 7을 사용하여 성인애착 회피와 불안이 신애착 회피와 불안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스트랩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서술통계 및 상관분석

성인애착 회피는 성인애착 불안($r=.33$ $p<.01$), 신애착 회피($r=.24$ $p<.01$), 신애착 불안($r=.11$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영성($r=-.32$ $p<.01$), 심리적 안녕감($r=-.56$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성인애착 불안은 신애착 회피($r=.13$ $p<.01$), 신애착 불안($r=.16$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영성($r=-.32$ $p<.01$), 심리적 안녕감($r=-.36$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신애착 회피는 영성($r=-.38$ $p<.01$), 심리적 안녕감($r=-.32$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신애착 불안과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애착 불안은 영성($r=-.16$ $p<.01$), 심리적 안녕감($r=-.17$ $p<.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영성은 심리적 안녕감($r=.68$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신애착의 매개효과

성인애착 회피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신애착 회피의 매개효과

성인애착 회피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신애착 회피와 심리적 안녕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회피는 신애착 회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4$, $p<.001$) 성인애착 회피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표 1. 주요 변인 간 서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333)

	1	1-1	1-2	2	2-1	2-2	3	4
1. 성인애착	1							
1-1. 성인애착 회피	.84**	1						
1-2. 성인애착 불안	.79**	.33**	1					
2. 신애착	.27**	.24**	.20**	1				
2-1. 신애착 회피	.23**	.24**	.13*	.75**	1			
2-2. 신애착 불안	.16**	.11*	.16**	.71**	.06	1		
3. 영성	-.39**	-.32**	-.32**	-.37**	-.38**	-.16**	1	
4. 심리적 안녕감	-.57**	-.56**	-.36**	-.34**	-.32**	-.17**	.68**	1
평균	3.39	3.00	3.77	2.74	2.57	2.91	3.58	3.56
표준편차	0.59	0.76	0.68	0.52	0.74	0.69	0.41	0.38
왜도	-0.51	-0.12	-0.45	-0.26	-0.10	-0.69	-0.11	0.04
첨도	0.64	-0.10	0.48	0.60	-0.48	1.05	0.01	0.31

주. ** $p < .01$, * $p < .05$

으로 나타났다($\beta = -.56, p < .001$). 다음으로 성인 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회피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beta = -.52, p < .001$), 신애착 회피 역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20, p < .001$)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

표 2. 성인애착회피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신 애착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모형 검증	B	β	t	R ²	F
성인애착 회피 → 신애착 회피	0.24	.24	4.63***	.06	19.91***
성인애착 회피 → 심리적 안녕감	-0.26	-.56	-12.39***	.31	153.52***
신애착 회피 → 심리적 안녕감	-0.10	-.20	-4.22***		
성인애착 회피 → 심리적 안녕감 (신애착 회피 통제 후)	-0.25	-.52	-11.33***	.35	89.60***

Bootstrapping(10,000)	Effect	SE	95% CI	
			Low	High
	-0.02	0.01	-0.0414	-0.0134

주. *** $p < .001$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 구간이 [-.0414~-0.134]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애착 회피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성인애착 회피는 신애착 회피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

성인애착 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신애착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불안은 신애착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6, p<.01$) 성인애착 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6, p<.001$). 다음으로 성인애착 불안과 신애착 불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beta=-.11, p<.001$), 신애착

불안 역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35, p<.05$)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 구간이 [-.0268~-0.0017]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애착 불안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성인애착 불안은 신애착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인애착과 신애착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조절효과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조절효과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 간의 관계에서 영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신애착 회피에 대한 성인애착

표 3.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

매개모형 검증	B	β	t	R ²	F
성인애착 불안→ 신애착 불안	0.16	.16	2.91**	.03	8.52**
성인애착 불안 → 심리적 안녕감	-0.20	-.36	-7.01***	.14	49.17***
신애착 불안 → 심리적 안녕감	-0.06	-.35	-2.22*		
성인애착 불안 → 심리적 안녕감 (신애착 불안 통제 후)	-0.20	-.11	-6.11***	.13	27.36***

Bootstrapping(10,000)	Effect	SE	95% CI	
			Low	High
	-0.01	0.01	-.0268	-.0017

주. *** $p<.001$, ** $p<.01$, * $p<.05$

표 4.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B	β	t	R ²	ΔR^2	F
1단계	성인애착 회피	0.12	.13	2.41*	.17	-	31.10***
	영성	-0.60	-.34	-6.32***			
2단계	성인애착 회피 x 영성	-0.13	-.47	-1.17	.18	.01	21.22***

주. *** $p < .001$, * $p < .05$

회피의 주효과와 영성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단계 모형에서 성인애착 회피와 영성의 상호작용항이 신애착 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인애착 불안과 신애착 불안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조절효과

성인애착 불안과 신애착 불안 간의 관계에서 영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 회귀모형에서 신애착 불안에 대한 성인애착 불만의 주효과와 영성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 모형에서 성인애착 불안과 영성의 상호작용항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절변인의 전체 구간 중 어떤 부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어 존슨-나이만(Johnson-Neyman Technique)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결과, 조절변수의 크기가 -1.25 이상 .06이하 영역에서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영성 수준이 1표준편차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 영성 수준이 낮을 때 성인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신애착 불안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또한, Aiken, West와 Reno(1991)가 제시한 $\pm 1SD$ 에서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성 수준이 낮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나, 영성 수준이 높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높은 영성 수준이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켰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6, 그림 2와 같다.

조절변인의 전체 구간 중 어떤 부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어 존슨-나이만(Johnson-Neyman Technique)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결과, 조절변수의 크기가 -1.25 이상 .06이하 영역에서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영성 수준이 1표준편차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 영성 수준이 낮을 때 성인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신애착 불안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또한, Aiken, West와 Reno(1991)가 제시한 $\pm 1SD$ 에서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성 수준이 낮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나, 영성 수준이 높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높은 영성 수준이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켰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6, 그림 2와 같다.

표 5. 성인애착 불안과 신애착 불안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B	β	t	R ²	ΔR^2	F
1단계	성인애착 불안	0.14	.12	2.12*	.03	-	6.52**
	영성	-0.20	-.12	-2.10*			
2단계	성인애착 불안 x 영성	-0.30	-.12	-2.30*	.04	.01	6.16**

주. ** $p < .01$, * $p < .05$

표 6. 영성 수준에 따른 신애착 불안에 대한 성인애착 불안의 단순 주효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조절변인 (영성)	Effect	SE	t	95% 신뢰구간	
						Low	Up
신애착 불안	성인애착 불안	M-1SD	.27	0.09	3.13**	.10	.44
		M	.14	0.06	2.47*	.03	.26
		M+1SD	-.02	0.07	0.23	-.13	.16

주.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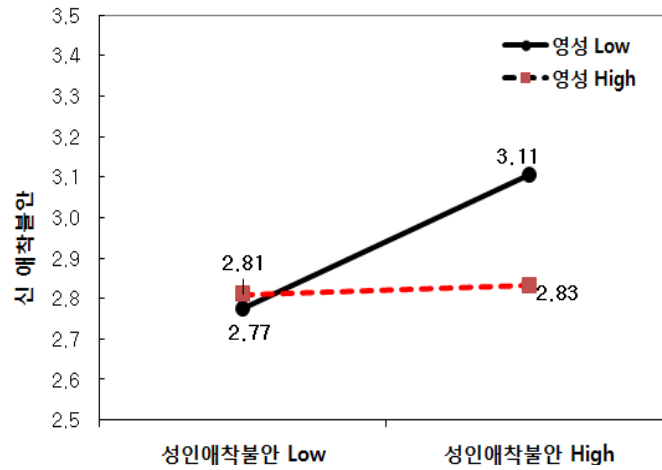


그림 2. 성인애착 불안과 영성의 상호작용효과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신애착 불안과 영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가 영성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검증한 결과, 1단계 매개변인 모형에서 성인애착 불안은 신애착 불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 = .14, p < .05$) 이러한 영향력은 영성 수준이 높아지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0, p < .05$). 2단계의

종속변인 모형에서 성인애착 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 = -.19, p < .001$), 신애착 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미하였다($B = -.06, p < .05$). 영성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크기의 변화가 유의미한지 Hayes(2015)가 제안한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지표인 *Index*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013~.0551]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영성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졌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신애착 불안과 영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매개변인 (신애착 불안)		
	B	SE	t
상수	2.89	0.04	74.27***
성인애착 불안	0.14	0.06	2.47*
영성	-0.18	0.09	-1.90
성인애착 불안×영성	-0.30	0.13	-2.30*

변인	종속변인 (심리적 안녕감)		
	B	SE	t
상수	3.75	0.08	44.17***
성인애착 불안	-0.19	0.03	-6.61***
신애착 불안	-0.06	0.03	-2.22*

Index	조건부 간접효과	SE	95% CI	
			Low	High
	.02	0.01	.0013	.0551

주. *** p<.001, * p<.05

표 8. 영성 수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신애착 불안의 간접효과

조절변인 (영성)	Effect	SE	95% 신뢰구간		
			Low	Up	
M-1SD	-.4185	-.0170	0.0090	-0.0399	-.0034
M	.0000	-.0090	0.0052	-0.0241	-.0017
M+1SD	.4185	-.0011	0.0057	-0.0133	.0101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신애착의 매개효과와 성인애착과 신애착의 관계를 영성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 성인애착이 신애착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년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333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회피는 신애착 회피와는 정적 관련성을 가진 반면, 영성과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애착 불안 역시 신애착 불안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 반면, 영성과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 관련성

을 나타냈다. 이는 성인애착 유형이 신애착 유형과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신승범, 2015; 최해림, 2006; Kirkpatrick, 1999; Kirkpatrick & Shaver, 1992)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인애착이 영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는 일반 성인(박인숙, 김은하, 2018) 중년기 성인(김유진, 2015) 대상으로 성인애착 유형과 영성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인애착 회피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신애착 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인애착 회피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신애착 회피를 통해서도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애착 회피가 부분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 회피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김정문, 2010; 김현주, 함경애, 천성문, 주동범, 2012) 신애착 회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Homan, 2014) 알 수 있다. 또한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Kirkpatrick(1992)이 제시한 일치가설 즉, 성인애착의 대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성인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이 동일하게 신과의 애착에서도 내적작동모델로 작용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보라, 전요섭, 2014; Kirkpatrick, 1999; Kirkpatrick & Shaver, 1992). 중년 성인은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신앙생활을 통해 안식의 대상으로서 신과의 관계맺음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내적작동모델로 인해 신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역동에 대한 상담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영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을 영성이 조절하지 못하는 결과는 성인애착과 관련된 이전 연구결과들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성인애착 회피의 경우, 정서적 문제를 회피하고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거리를 최대화하기 때문에 성인애착 불안인 경우와 달리 안전기로서 절대자에 대한 갈구와 신뢰 수준이 낮을 수 있고 자기 의존 성향이 높을 수 있다(김병직, 오경자, 2013). 즉, 강한 자기의존으로 절대자를 신뢰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영성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았다(김유진, 2015). 따라서 영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성인애착 회피의 경우 안정애착으로의 변화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상담적 개입에서 영성을 조절변인으로 선택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인애착 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신애착 불안을 통해서도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애착 불안이 부분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김정문, 2010; 김현주 등, 2012)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대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는 성인애착 불안의 경우 신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신에게서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는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의 관계와 같이 Kirkpatrick(1992)이 제시한 일치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 불안 역시 신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내적작동모델을 반복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영성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영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영성 수준에 따라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성 수준이 낮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나, 영성 수준이 높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영성 수준이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획득된 안정애착으로의 변화요인으로 애착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이 강조된 바 있지만(Kirkpatrick, 1992; Kirkpatrick & Shaver, 1992; Main, Goldwyn & Hesse, 2002) 반드시 종교적 맥락에서 경험되지 않은 영성(Steger & Frazier, 2005) 역시 성인애착 불안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신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으로의 변화를 촉진시켜 획득된 안정애착을 갖게끔 하는 만큼(정고운, 2011) 상담 장면에서 영성 수준을 높임으로써 획득된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이는 다시 신과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심리

적 안녕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 큰 절대자에게 의지하며 삶의 중압감을 극복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중년 성인에게 상담 장면에서 영성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utris & Davis, 1999; Faiver et al., 2000).

다섯째,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을 통해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 크기가 영성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영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영성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 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가 작아졌다. 이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영성이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의 결과와는 대비되는 것인데, 영성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은 성인애착 불안의 경우에 국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보호요인으로서의 영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성인애착 유형이 불안 유형인지 혹은 회피 유형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상담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성인애착과 신애착 관련 연구들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인들만을(목회자, 신학생, 기독교인) 연구대상으로 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일신이 아닌 보편화된 신의 개념으로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분류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 유무를 떠나 중년 성인에

대한 상담에서 신 혹은 영성 등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의의도 있다.

둘째, 성인애착과 신애착과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중년 성인의 성인애착과 이로 인한 신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성의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동안 성인애착이 중년 성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신애착과 영성 등 중년기의 발달적 주제를 반영하는 변인들을 포함함으로써 중년 성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자들 가운데 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가 일반인들의 보편화된 신의 개념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종교 유무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종교인과 무교인 자를 구분하여 각 집단에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화된 신의 개념에 기반하였지만 종교인들과 달리 비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신의 개념이 모호할 수 있고, 평소 잘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응답의 신뢰성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절대자 혹은 안전기지로서 보편화된 신의 개념에 대한 타당도와 응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본 모형은 횡단적 자료에 기반한 만큼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성인애착이 신애착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영성의 조절 효과 역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길자, 한재희 (2009). 불안을 호소하는 기독교인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253-283.
- 김광은 (2005).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갈등대처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동기 (2013). 종교 행동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미선, 이유니 (2018). 기혼여성의 초기 부모애착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하나님애착의 조절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4), 9-34.
- 김병직 (2009). 성인애착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반추와 정서억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직, 오경자 (2013). 성인애착 불안/회피 차원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정서 조절의 차별적 경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519-548.
-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이 (2017). 유아교사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5). 중년여성의 성인애착과 삶의 만

- 죽 간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와 영성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아 (2003). 종교성향에 따른 자아분화와 자녀양육 태도. 호남신학대학교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춘경 (2011). 중년기 우울 여성의 심리적 경험 양상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50(3), 25-51.
- 김태사, 안명희 (2013).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53-871.
- 김행섭 (2010). 여성 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성인애착과 가족탄력성 및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함경애, 천성문, 주동범 (2012). 중학교 교사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원교육연구, 29(4), 445-466.
- 류정희 (2008). 가톨릭 청년의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 종교연구, 51, 193-225.
- 박미경 (2016).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숙, 김은하 (2018).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173-193.
- 송숙자 (2002). 중년기 대처방식과 정서적 위기와 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범 (2015). 기독교대학생의 성인애착과 하나님 애착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도 S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3, 293-318.
- 안수정, 서영석 (2017). 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29-657
- 안진영, 유순화 (2016). 대학생의 수용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2), 173-197.
- 이경열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11-728.
- 이보라, 전요섭 (2014). 기독교청년의 성인애착유형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기독교 상담 방안: 기독교 인지행동치료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0, 217-240.
- 이은영, 왕은자 (2017).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9), 481-503.
- 임선배 (2013). 대학생의 획득된 안정애착과 성격강점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고운 (2011). 보상애착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덕신, 배성만, 주은선 (2014). 영성과 포커싱적 태도가 중년 여성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301-314.
- 정성훈 (2013).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자기성찰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훈, 심운경, 천성문 (2016). 중년 남성의

- 심리적 위기감과 자기성찰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41, 81-105.
- 조영주, 이지연, 장진이 (2012). 신앙을 가진 중년여성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 23(2), 203-225.
- 조혜윤, 손은정 (2008).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73-793.
- 최해림 (2005). 한국판 신 애착 질문지의 타당화. *인문이해*, 26, 1-16.
- 최해림 (2006). 부모애착, 자기애, 신 애착의 관계. *인문이해*, 27, 1-16.
- 한내창 (2002). 노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삶의 질. *종교연구*, 26, 43-63.
- 한재희 (2007). 기독교인의 우울증 극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4, 289-310.
- 허찬 (2006). 종교성향,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llen, J. P., Bell, K. L., & Boykin, K. A.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mother interactions and social functioning with peers. *In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Bishop, A. J. (2008). Stress and depression among older residents in religious monasteries: Do friends and God matt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7(1), 1-23.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nnan K. A., Fraley, R. C., & Waller, N. G.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Curtis, R. C., & Davis, K. M. (1999). Spirituality and multimodal therapy: A practical approach to incorporating spirituality in counseling. *Counseling and Values*, 43(3), 199-210.
- Ellison, C. G., Bradshaw, M., Flannelly, K. J., & Galek, K. C. (2014). Prayer, attachment to God, and symptoms of anxiety-related disorders among US adults. *Sociology of Religion*, 75(2), 208-233.
- Faiver, C. M., O'Brien, E. M., & Ingersoll, R. E. (2000). Religion, guil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2), 155-161.
- Freeze, T. A., & DiTommaso, E. (2014). An examination of attachment, religiousness, spirituality and well-being in a Baptist faith sample.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7(7), 690-702.
- Granqvist, P. (1998). Religiousness and perceived childhood attachment: On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or corresponde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50-367.
- Granqvist, P. (2002). Attachment and religiosity in

- adolescenc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alu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2), 260-270.
- Hall, T. W., Fujikawa, A., Halcrow, S. R., Hill, P. C., & Delaney, H. (2009). Attachment to God and implicit spirituality: Clarifying correspondence and compensation model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7(4), 227-242.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 Homan, K. J. (2014). A mediation model linking attachment to God, self-compassion, and mental health.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7(10), 977-989.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Kirkpatrick, L. A. (1992). An attachment-theory approach psychology of relig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1), 3-28.
- Kirkpatrick, L. A.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religious belief and behavior as a func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ult attachment sty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07-217.
- Kirkpatrick, L. A. (1999). Toward an evolutionary psychology of religion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7(6), 921-952.
- Kirkpatrick, L. A. (2005). *Attachment, evolution, and the psychology of religion*. Guilford press.
- Kirkpatrick, L. A., & Shaver, P. R. (1992).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romantic love and religious belie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266-275.
- Knabb, J. J., & Pelletier, J.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Internet use, God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mong adults at a Christian university.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7(3), 239-251.
- Kobak, R. R., & Sceery, A. (199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135-146.
- Main, M., Goldwyn, R., & Hesse, E. (2002). Classification and scoring systems for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104.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Rizzuto, A. M. (2000). 살아있는 신의 탄생 (이재훈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79출판)
- Rowatt, W., & Kirkpatrick, L. A. (2002). Two dimensions of attachment to God and their relation to affect, religiosity, and personality construc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4), 637-65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adler, W. (2000). 서든 에이지, 마흔 이후 30

- 년. New York: Basic Books.
- Stanard, R. P., Sandhu, D. S., & Painter, L. C. (2000). Assessment of spirituality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2), 204-210.
- Sperling, M. B., & Berman, W. H. (1994).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Steger, M. F., & Fraizer, P. (2005). Meaning in life: One link in the chain from religiousness to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74-582.
- Varghese M. E. (2015). *Attachment to G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hame, guilt, and self-compassion as mediators*. Doctor of Philosophy Purdue University.

원 고 접 수 일 : 2018. 12. 05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2. 08

게 재 결 정 일 : 2019. 03. 06

The Influence of Adult-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to God and Spirituality

Mun Jeong Park

Jin Yi Jang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through attachment to G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400 middle aged adults(40's to 60's) participated and 333 data were analyzed.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avoidant attachment to G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dult attachment and avoidant attachment to God was not significant. A mediating effect of anxious attachment to G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found.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dult attachment and anxious attachment to God. Finally, spiritualit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anxious adult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anxious attachment to Go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psychological well-being, attachment to God, spirituality, moderated mediating effect